

**설 서민 시름 2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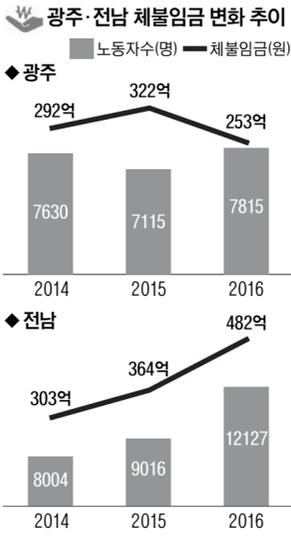
# 빈손 명절 근로자 체불임금 '고통'

광주·전남 2만명 피해  
설 앞두고 곳곳 아우성

#1. 대기업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던 A씨는 임금 7개월분과 퇴직금 등 2000만원을 받지 못했다. 같은 회사 동료 51명이 못 받은 임금은 9억여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 회사 사장 김모(59)씨는 여유롭게 골프를 즐겼다. 수사기관은 악덕 상습체불로 보고 김씨를 골프장에서 붙잡았다. 김씨는 구속기소한 김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구형했다.

#2. 지난 23일 오전 8시 순천 팔마국민체육센터. 건설노동자 50여명이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항의시위를 했다. 순천시가 발주한 관공사지반 하청업체가 근로자 65명의 11·12월분 임금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이들은 "발주처인 순천시에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공사를 내주는 등 불법적인 관행을 목격한 책임이 있다"며 임금 직접 지불을 요구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곳곳에서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을 달라"며 아우성이다. 광주·전남에서만 2만명에 달한다. 검찰과 노동청은 이런 상황을 감안해 근로자들의 고통을 겪어주는 악덕사업주를 구속하는 등 악성 체불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



지역별로는 광주 253억원·전남 482억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면 광주는 69억원이 감소한 반면 전남은 117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광주의 경우 2015년에는 1개 기업이 80억원의 임금을 체불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광주도 전남보다 10억원 가량 체불액이 증가한 셈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338억원(46.1%), 건설업 180억원(24.6%)으로 제조와 건설업에서 전체 체불임금의 70%를 차지했다. 건설업은 전년 대비 체불액이 28억원(18.7%), 금융·보험·부동산·사업 서비스업 16억원(53.8%), 도소매·음식·숙박업 12억원(21.7%) 증가했다.

특히 전남은 제조업에서 267억원의 체불임금이 발생, 전년보다 107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전남지역 체불임금 증가액 117억원의 91.5%를 차지하는 액수다.

민중노총 전남본부는 "설이 코 앞이지만 수많은 노동자들이 맘껏 일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차가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임금체불은 가정을 파탄 내고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며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중대범죄"라며 "명절 때마다 이뤄지는 반쪽 단속과 솜방망이 처벌로는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악덕사업주를 구속하는 등 강력 처벌하고 관공서는 불법하도급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설 선물은 지역 농·축산물로" 24일 광주시 동구 KT광주정보통신센터 광장에서 지역 농·축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 열린 '설맞이 농·축산물 직거래장터'에서 농협 임·직원들이 지역 농·축산물을 안내하고 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우리 민족 최고의 명절인 설을 맞아 26일까지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 /\*남영기기자 mjna@

## 근로정신대 할머니들 법정서 피해 증언한다 '여성 폭행' 경찰간부 직위해제

미쓰비시 상대 손해소송  
4월 25일 증인으로 출두

일본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이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의 강제노동 실태를 법정에서 증언한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 김현정 판사는 24일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영옥(84) 할머니와 고(故) 최정례씨의 유족인 이경자(73)씨 등 2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변론기일이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은 김 할머니와

최씨가 당시 일본으로 끌려가 강제노동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했고, 김 판사는 이를 채택했다. 이어 변호인은 "원고가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며 김영옥 할머니와 양금덕(86) 할머니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양 할머니는 고 최정례씨와 같은 마을에 살다가 일본으로 끌려갔고, 최씨와 같이 일하며 그의 사랑을 지켜왔다.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의 법정 증언은 오는 4월25일 오후 4시30분에 진행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술에 취한 여성을 폭행했다는 112신고가 접수된 현지 경찰간부가 직위 해제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A경감을 직위해제하고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 17일 새벽 3시에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에서 술을 마신 뒤 만취한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A경감이 폭행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검찰 등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징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물고기 씨 말리는 中어선 범장망 그물 압수

서해어업관리단 목포서

나포된 중국어선에서 물고기 씨를 말리는 자재를 받은 어선 범장망 그물이 압수됐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24일 목포 서해어업관리단 전용부두에서 중국어선 2척에 실려있던 범장망 그물을 압수했다. 소사어09899호 등 2척은 지난 18일 흑산도 해역에서 불법 어구인 범장망을 이용해 물고기를 잡다가 붙잡혔다. 범장망은 조류가 빠른 곳에 어구를 고정, 조류에 의해 물고기 떼가 어구에 들어가고도록 하는 어법으로 중국어선이 사용한다. 해저 바닥에 설치하는 이 그물은 가로 20m, 세로 5.5m, 길이 2m 크기의 자루 형태 그물 10개를 이어붙인 것으로 규모가 거대하다. 그물코도 20~30mm로 매우 촘촘해 물고기 씨를 말린다는 우려

가 일면서 한중어업협정에서도 이 어구 사용을 불허하고 있다. 중국 어선들은 단속을 피하고 단속되더라도 신속히 달아나려고 자국 영해로 인접한 우리 영해에 그물을 설치한다. 대표적인 곳이 제주와 흑산도 해역이다. 흑산해역에서는 이번 2척을 포함, 지난해 1월 2척, 12월 3척 등 총 7척이 나포됐다. 제주해역은 특히 범장망 어선이 활개를 치는 곳으로 지난해 13척과 올해 들어 1척 등 14척이 적발됐다. 서해어업관리단 김평전 단장은 "범장망 어선의 횡포를 초기에 차단하기 위해 목포안감명협회 등과 협력해 효과적인 범장망 적발 방법을 찾아보고 어구 양방향 처리를 위한 선박과 장비 개발 등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 흉친 휴대전화로 카톡하다 탈미

○~한밤중에 광주의 한 병원을 활보하며 환자 보호자의 휴대전화, 의료인들의 물품 등을 훔쳐 달아난 30대가 흉친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을 사용한 게 발미가 돼 경찰서행. ○~24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박모(36)씨는 지난달 11일 새벽 1시에 광주시 동구 학동의 한 병원에 환자 보호자인 양 들어가 응급실 대기실에선 잠을 자던 이모(여·53)씨의 휴대전화를 훔친 데 이어 감시가 소홀한 의사 당직실에 들어가 신용카드를 포함 53만원어치의 물건을 몰래 들고 나왔다는 것. ○~박씨는 겁도 없이 흉친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에 접속했는데, 피해자 가족들이 단독방에서 이씨의 프로필 사진이 낯선 인물(박씨)로 변경된 모습을 캡처해둔 사진과 범행 현장 CCTV에 담긴 용의자가 동일인물이라는 것이 경찰에 발각되면서 결국 경찰에 탈미. /\*김한영기자 young@

# 마구잡이로 오른 생활물가 '한숨'

혼란 시국 줄줄이 인상  
"차떼상 차리기 겁나요"

탄핵과 특검 등 비상사태에서 서민 삶과 직결된 생활물가가 야금야금 오르며 서민들의 일상이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서민들은 설(28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식탁물가가 크게 뛰여 제수 마련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경제계, 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새해 들어 갖가지 생활물가가 오르며, 불경기 속 곤궁한 서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기름 값, 식재료 값 등이 고공행진을 계속하는 가운데, 상·하수도 요금까지 오르며 서민 가계에 적격탄을 날리고 있는 것.

이 같은 상황은 청탁금지법, 박근혜 대통령 탄핵 등으로 인한 내수 경기 침체와 맞물리며, 가뜰이나 어려운 서민 체감 경

■ 최근 두 달간 제품 출고 가격 올린 업체 (자료:각업체)

농심 신라면(1봉지)	780원⇒830원
파리바게뜨 단팻빵	800원⇒900원
코카콜라 콜라(1.5L)	1932원⇒2028원
오비맥주 카스(500ml)	1082원⇒1147원

기를 얼어붙게 하고 있다. 최근 전남 지역의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 요금이 지자체별로 평균 10.6% 올랐다. 3년 만의 요금 인상이다. 이에 따라 성인 요금이 5개 시는 1350원, 17개 군 지역은 1300원으로 인상되면서 인상이 각각 12.5%와 8.3%에 달했다. 광주에서는 내년 2월부터 상수도 요금이 오른다. 20ml를 기준으로 상수도가

3.9%, 하수도가 8.6% 인상된다. 기름값도 오름세다. 신유국의 감소로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휘발유 값은 1당 1500원 돌파했다. 장바구니 물가가 비상이다. 지난달 기준으로 광주·전남에서 신선식품 물가지수가 10% 이상 오른 데 이어 계란 값이 치솟았다. 지난 12월 광주·전남 소비자심리지수는 90.0으로 금융위기 이후 7년 8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12월을 기해 신라면이 780원에서 830원으로 올랐고, 지난해에는 코카콜라 값이 5% 인상됐다. 오비맥주, 하이트진로 등도 연말에 슬그머니 맥주값을 6%쯤 올렸다. 탄핵 정국으로 정부의 시장 감시 기능이 약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처럼 물가인상이 지속되면서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갈수록 험겨워지고 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 2017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 대학원 신·편입생 추가모집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평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 학부 편입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정원내	정원외
		일반편입 (3학년)	학사편입 (3학년)
인문	신학과	○	○
	국제한국어교원학과	○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	○
사범	유아교육과	○	○
예능	음악학과	○	
	실용음악학과	○	

\* 음악학과 전공 ▶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레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 실용음악학과 전공 ▶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어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7. 1. 9(월) ~ 18(수)  
• 전형일 : 2017. 1. 23(월)



사랑과 감사의 63년  
1954~2017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지사로 36

입학문의 ▶ 학부 062)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

### 대학원 신입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7. 1. 24(화) ~ 2. 6(월)  
• 전형일

\*모집학과 및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전형일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2017. 2. 8(수) 오후 2시30분
		목회학과(D.Min.)	○	
일반대학원	석사	신학과(Th.M.)	○	2017. 2. 8(수) 오전 10시
		유아교육학과(M.Ed.)	○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	2017. 2. 8(수) 오후 3시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	
		평생교육학과(M.Ed.)	○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원학과(M.A.)	○	
		음악학과(M.A.)	○	
음악대학원	석사	실용음악학과(M.A.)	○	

### 신학대학원 편입

####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료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모집학년	모집인원	지원자격
2학년	○명(주·야)	3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2학기 이상 수료자
3학년	○명(주·야)	6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4학기 이상 수료자

####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7. 1. 24(화) ~ 2. 6(월)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 전형일 : 2017. 2. 8(수) 오후 2시 30분